



자녀 없는 부부가구와 의료비지출

이정택 연구위원

요약

■ 우리나라 가구 구조는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자녀 없는 부부가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자녀 없는 부부가구의 의료비 지출 특징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 없는 부부가구의 의료비 지출 수준이 자녀 있는 부부가구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임. 이러한 관계에 따르면, 자녀 없는 부부가구는 자신들을 부양할 자식이 없기 때문에 건강유지를 위해 의료 소비를 많이 하고, 노년의 의료비를 위해 저축 및 민간의료 보험·간병보험·장기요양보험 수요를 증가시킬 것임.

■ 우리나라는 최근 자녀 없는 부부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음.

- 통계청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자녀 없는 부부가구는 1990년 4.5%에서 2010년 15%로 증가하였고,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는 57.3%에서 37.0%로 감소함.¹⁾
- 이는 자녀 없는 부부가구가 2025~2030년에는 2000년대 중반 대비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라는 연구보고와 일맥상통함.²⁾

■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 없는 부부가구는 자녀 있는 부부가구 대비 높은 수준의 의료비 지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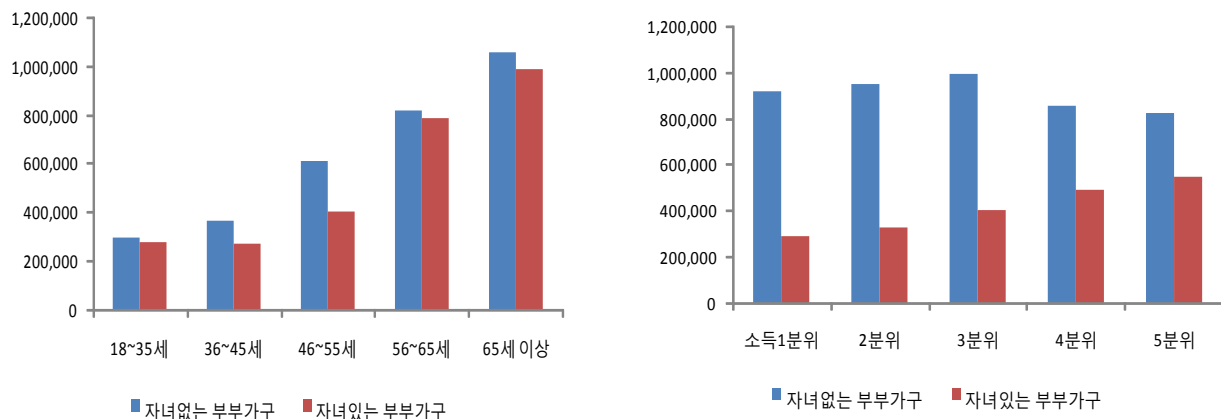
- 자녀 없는 부부가구는 평균 923,792원, 자녀 있는 부부가구는 평균 461,220원 각각 지출함.³⁾
- 또한 모든 연령층에서 자녀 없는 부부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자녀 있는 부부가구보다 크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 지출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가구 소득 분위별로 볼 때, 자녀 없는 부부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자녀 있는 부부가구보다 높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그 차이는 크게 나타남.⁴⁾

1) KOSIS 국가통계포털.

2) OECD(2011),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3) 2012년 의료패널을 이용하였고 연간 개인의료비 구성항목은 응급·외래·입원 의료비와 의약품비로 구성됨.

〈그림 1〉 의료비 지출 비교: 자녀 없는 부부가구와 자녀 있는 부부가구



자료: 2012 의료패널.

■ 이는 자녀 없는 부부가구가 자녀 부양을 위한 소비 대신 자신을 위한 소비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일 수 있음.

- 36~55세까지 자녀에 대한 소비지출 부담이 큰 연령에서 두 가구사이의 의료비 격차는 큼.
- 자녀 있는 저소득층은 자녀 소비지출 부담으로 자신을 위한 의료소비를 줄이는 반면, 자녀 있는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자녀 부양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의료지출을 많이 할 수 있음.

■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자녀 없는 부부가구가 증가할수록 민영의료보험 수요 또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녀 없는 부부가구는 노년에 자식이 없어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의료지출을 많이 하고, 노년의 의료비를 위해 저축 및 민영의료·간병·장기요양보험 수요를 증가시킬 것임.
- 따라서 저출산·만혼에 따른 자녀 없는 부부가구의 증가 추세는 의료비 지출과 민간의료보험 수요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kiri](#)

4) 소득 1분위 계층은 최하위 20%, 5분위 계층은 최상위 20%에 속하는 소득 계층임.